

지경부,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서비스

지식경제부가 <산업단지형 화학물질관리서비스(CMS) 사업>을 추진한다.

지식경제부는 화학물질관리 전문회사가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<산업단지형 화학물질관리서비스(CMS) 사업>을 시작한다고 9월30일 발표했다.

CYC 등 반월·시화공단 입주기업 10개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<산업단지형 화학물질관리 시범사업> 협약을 9월30일 체결했다.

<화학물질관리서비스>는 화학물질 관리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 판단, 대체물질 사용방안 등 화학물질관리 전 과정을 자문하고 개선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.

<화학저널 2011/09/30>